

미래모빌리티도시 조성 위한 공모사업 추진

- 6월 8일 사전설명회 개최... 12일부터 모빌리티특화도시 공모·8월 말 선정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자율주행, UAM 등 다양한 모빌리티 수단이 구현될 수 있는 미래모빌리티도시 조성을 위한 「모빌리티 특화도시* 공모사업」(이하 공모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 첨단 모빌리티 서비스가 도시 전체에서 구현되어 시민의 이동성이 혁신적으로 증진된 도시
-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공모사업은 6월 12일부터 8월 4일까지 8주간 공모를 통해 지자체 신청을 받은 후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를 거쳐 8월말 선정할 예정이다.
- 이번 공모는 도시 조성단계에 따라 신규도시의 도시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유형과 기존도시의 모빌리티 혁신 사업을 지원하는 유형으로 나누어 공모할 예정으로,
 - ‘미래모빌리티도시형’은 도시 내 공간을 도시계획 시점부터 첨단모빌리티가 적용될 수 있는 거점으로 조성이 가능한 신규도시 1개소에 대해 마스터플랜 등 도시계획 수립비 최대 7억원(국비)을 지원하고,
 - ‘모빌리티 혁신 지원형’은 각 지역 여건에 맞게 특화된 첨단 모빌리티 기술을 도입하여 이동성이 최적화된 도시로 전환하는 기존도시 2개소에 대해 국비 최대 연 10억원(지방비 5:5 매칭), 최대 2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공모에 앞서 6월 8일 지자체, 공공기관, 모빌리티 관련 사업자 등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는 「모빌리티 특화도시 공모사업 사전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심지영 모빌리티총괄과장은 “이번 공모사업은 미래모빌리티 도시 조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향후 다양한 첨단 모빌리티가 구현된 도시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모빌리티자동차국	책임자	과 장	심지영 (044-201-3835)
	모빌리티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문채빈 (044-201-3820)

참고1

모빌리티 특화도시 공모사업 주요 내용

1. 개요

- (목적) 자율주행 등 첨단 모빌리티 서비스가 도시 전체에서 구현되어 시민의 이동성이 혁신적으로 증진된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
- (추진방향) 도시계획 시점부터 적용가능한 신규도시와 지역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존도시를 구분하여 지원대상 선정

2. 주요내용

① 미래모빌리티도시형(신규도시)

- (지원목적) 첨단 모빌리티 수단의 전면 적용이 가능한 도시공간과 인프라를 갖춘 핵심거점으로 미래형 모빌리티 도시 조성을 지원
 - 모빌리티 특화에 필요한 공간구조 변화를 포함한 도시계획 수립(마스터플랜 등)을 시범적으로 지원하여 도시 조성 유도
- (추진체계) 지자체 주관, 사업시행자(LH 등)가 있는 경우 공동참여
- (지원내용) 1개소 내외, 1년간 계획수립비 최대 7억(국비 100%)

② 모빌리티 혁신 지원형(기존도시)

- (지원목적) 지역 교통문제 등 도시여건에 맞게 특화된 첨단모빌리티 서비스를 구현하는 도시로 단계적 전환 및 확산 지원
- (추진체계) 지자체 주관, 기업·공공기관 등이 사업수행자 공동응모
- (지원내용) 2개소 내외, 개소당 국비 연 10억, 최대 2년(지방비 5:5 매칭)

< 사업별 공모 일정(안) >

사전설명회	공고	접수	공모 평가		선정
			서면평가	발표평가	
6월 2주	6월 2주	6월 3주~8월 1주	8월 2주	8월 3주	8월 3주

* 사정에 따라 일정변경 가능

참고2

모빌리티 미래상(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22.9)

- ◆ 도시 공간을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가 구현되고, 모빌리티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혁신 거점으로 조성
- ◆ 기존 공간 구조는 모빌리티 시대에 예상되는 국민 삶의 변화에 맞추어 미래지향적으로 재설계

- (2025년) 운전자가 입고 구역에 차량을 두면 로봇이 발렛 주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율주행 주차로봇 서비스 확산

경기도에 거주하는 M씨는 운전 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주차만큼은 전혀 두렵지 않다. 인근 공영주차장에 자율주행 주차로봇이 있기 때문이다. 입고 구역에 차량을 두면 **로봇이 대신 주차**해주기 때문에 문콕 걱정도 전혀 없다.



- (2028년) 자율주행, UAM, 디지털 물류, 수요응답형 서비스 등 모빌리티가 전면 적용될 수 있는 '모빌리티 특화도시(신도시형)' 본격 입주

신도시 입주를 앞둔 N씨는 지난 '23년 전국 최초로 지정되어 사업이 진행된 **모빌리티 특화도시**에서 살게 되었다. **도시 계획 단계부터 최우선 검토한 첨단 인프라**의 도움으로 자율주행도 수월하고, 콜드체인 주문배송시설에서 신선상품도 바로 받아볼 수 있다고 한다.



- (2040년) 모든 신규 개발지구에서 자율주행, UAM, 스마트 물류 등 미래 모빌리티를 구현(전국 도시의 모빌리티 특화도시화)

20여년간 도시계획가로 일해온 O씨는 지구 조성사업에 참여하면서 모빌리티를 도시 공간에서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가장 많이 고민했다. 처음 일을 시작한 20년전과 달리 자율주행 도로와 지하 물류망, UAM 환승센터까지 **모든 인프라를 갖추고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가 제공되는 **모빌리티 도시**는 이제 모든 곳에서 **일반적인 모습**이 되었다.

